담배피우는 중고생, 못본체하는 어른들

학원가·골목길서 흡연 '버젓이'
"해코지 두렵다" 외면하기 일쑤

"거리에서 평상복을 입고 피우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교복 입고 담배를 피워도 지적하는 어른들은 없었어요…."

"어린 여학생들이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면 꼴불견이죠. 그렇다고 함부로 나설 순 없죠. 경찰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최근 청소년들의 일탈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길거리에서 흡연을 해도 단속이나 제재 없이 방치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만 제한될 뿐, 청소년의 흡연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 26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의 한 골목길. 언뜻 봐도 앳된 얼굴의 한 무리 청소년들이 주변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버젓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흡연을 간섭하는 경찰이나 어른들은 없었다. 심지어 교복 차림의 여학생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도 목격됐다. 이들이 머문 자리엔 담배꽁초가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었다.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충장로와 보습학원이 밀집해 있는 동구 장동 일대, 인근 도서관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예술의거리 학원가 주변 상인들도 어린 학생들이 담배를 피는 모습을 자주 목격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들의 빗나간 행동을 막을 현실적 조치는 없다.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을 목격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만 제한될 뿐, 흡연행위 자체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어떠한 경로로든 담배만 손에 쥐게 되면 흡연을 해도 단속할 수 없다는 의미다.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는 금남공원 인근 상인들도 이 때문에 난처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카페를 운영하는 이모(여·51)씨는 "학생들이 담배 피우는 모습을 자주 보지만, 흉흉한 세상인 탓에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몰라 못본 체 지나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청소년 흡연에 대해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찰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우범지역 순찰을 도는 경찰관들도 청소년 흡연 현장을 보고도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흡연행위 자체는 위법사항이 아니라 단속할 수 없다"며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선도만 할 수 있을 뿐 담배를 판 곳을 캐묻거나 압수할 수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청소년 흡연을 막기 위해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파는 업소에 대한 단속과 예방교육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청소년 흡연행위에 대한 양벌 규정을 신설해 흡연청소년들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중·고교 남학생 20.7%가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 흡연자도 5.2%나 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중·고생들이 길거리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우고 있지만 경찰과 학교는 지도와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광주시 금남로 한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청소년들. 〈사진부〉

"땅속에 묻었나"

여수 8급 공무원 횡령 76억 행방 관심

가묘 쓴다며 임야 매입 시도
순천지청, 돈 관리 아내 구속

여수시청 공무원 김모(47·구속)씨가 횡령한 공금 76억여원의 행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은닉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씨가 범행 탄로 직전 가묘(假墓)를 쓴다며 임야를 매입하려 한 것으로 알려져 야산 등에 묻어두었을 개연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씨를 수사중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6일 김씨의 아내 김모(40)씨를 횡령 혐의로 구속하고 친인척에 대한 수사에 나서는 등 김씨를 압박하고 있다.

28일 여수시와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김씨는 아내와 승용차를 타고 동반자살을 기도하다 발견된 전날인 지난 17일 전남의 한 지역에 들러 가묘를 쓴다며 임야 매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공급 횡령액이 드러난 것만 76억여원에 이르는데다 현재까지 사용처가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아 남은 돈을 비밀 장소에 숨겨뒀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검찰에서 김씨는 돈을 모두 써버렸다며 용처를 정확하게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김씨를 구속한 검찰도 공금을 숨겨뒀을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대한 수색을 검토하는 한편 아내, 친인척 등을 대상으로 '횡령 공금 찾기'에 나섰다.

김씨는 지난 2009년부터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퇴직·전출한 직원들의 명의를 도용해 급여계좌를 만들어 이를 시 금고인 농협에 제출, 급여를 가로채고 여수상품권 가상가맹점 개설 후 판매대금이나 직원 근로소득세 과다징수 후 차액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지능적인데다 관련 계좌만 100여개에 달해 횡령 공금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찰은 29일 오후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나원참 〈8677〉 김종두

봉선동 고급 아파트 절도 잇따라

두곳서 5건… 6000만원 피해

28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이모(54)씨가 지난 19일 오후 7시께 광주시 남구 봉선동 한 아파트 3층 자신의 집에서 6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포함해 4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귀금속이 모두 사라졌다"고 말했다. 같은 날 같은 아파트 2층 김모(47)씨의 집에도 괴한이 침입해 3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범행이 주로 아파트 저층에서 이뤄진 점으로 미뤄, 범인이 베란다를 통해 침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일대 아파트 두 곳에서는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모두 5곳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해 피해액만도 모두 6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전 동거녀 납치 40대 검거

광주서부경찰은 28일 잦은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간 전 동거녀를 납치·감금한 김모(42)씨에 대해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15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한 도로에서 전 동거녀인 송모(여·49)씨를 납치해 차량에 감금한 뒤, 약 10시간 가량 광주와 담양 일대를 끌고 다닌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 8월17일 밤 10시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자신의 집에서 송씨를 주먹으로 폭행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변호사 찌른 40대 누가 변호?

순번상 선임된 국선변호인
피해 변호사 같은 건물 근무
피의자와 의견차… 사임할수도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선임했던 변호사를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을 누가 변호할 것인가. 광주에서 사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를 흉기로 찌른 조모(47)씨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국선변호인으로 A변호사가 결정됐다.

A변호사는 의사와 무관하게 국선 변호인 순번에 따라 조씨를 변호하게 됐지만 양자간 의견차로 1심 선고까지 함께 할 지는 미지수다.

A변호사는 범죄가 조씨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재판부에 선처를 바라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조씨는 그렇게 할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A변호사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조씨가 흉기로 찌른 변호사의 잘못은 없는 것 아니냐"며 "조씨가 개인적으로는 고맙지만 혼자 재판을 받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변호사는 조씨에게 피해를 당한 변호사와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고 개인적인 관계도 있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변호사는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순번 변호사에게 '짐'이 넘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조씨가 변호사를 구하지 못할 경우 '나 홀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조씨의 가족은 지역 유명 변호사를 찾아가 선임을 부탁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가 피해 변호사뿐만 아니라 과거 다른 변호사들에게도 불만을 쏟아내고 선임료를 돌려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만취상태서 또 주민 행패

경찰, 주폭 50대 둘 구속

광주북부경찰은 28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식당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고 업주를 협박,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노모(5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10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한 가게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업주 김모(54)씨를 폭행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다.

전과 52범인 노씨는 상습주폭 관리대상자로 2009년 업무방해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출소하는 등 주취 범행만 41차례를 저질러 구속 6차례에, 통고처분 5차례와 즉심회부 2차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슈퍼마켓에 들어가 손님을 폭행, 협박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폭행 및 업무방해)로 또 다른 주폭 김모(52)씨가 구속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쌍나팔

승강장서 성기 내보이며 여성 희롱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자신의 '중요 부위'를 보여주며 10대 여성을 희롱한 20대 백수가 경찰서행.

○…28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나모(24·무직)씨는 지난 26일 오후 6시30분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 한 시내버스 승강장 부스 안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A(18)양을 희롱했다는 것.

○…나씨는 경찰에서 "호기심 때문에 나도 모르게 실수한 것 같다"며 뒤늦게 선처를 호소.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